

콘크리트 맨홀 뚜껑, '보도 위 지뢰밭' 됐다

환경부 '보행자 추락사고' 계기 지자체에 현황파악 요청 제주 맨홀뚜껑 11만여개... 도 "콘크리트 재질 파악 불가" 설치된지 20년... 철제보다 내구성 약해 갑자기 부서져

정부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해 전수조사했지만, 이런 맨홀 덮개가 도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또 몇개인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맨홀 등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부처인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콘크리트 맨홀을 전수조사해 보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콘크리트 맨홀 뚜껑 파손으로 보행자가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별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붉은색 등 색깔을 넣은 것으로, 도시 미관 개선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 설치됐다. 도시 미관과 어울린다고 해서 조화(調和) 맨홀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철제 맨홀에 비해 내구성이 약해 쉽게 파손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대다수가 노후했고, 사전 징후 없이 부서지는 특성 탓에 현재는 보도 위의 '지뢰밭'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약 한달 간 조사에 나섰지만 도내에 설치된 맨홀 뚜껑 중 어느 것이 콘크리트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 상 하수관리시스템(GIS)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재질 구분 없이 전체적인 맨홀 뚜껑 설치 갯수와 설치 장소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도내에 설치된 맨홀은 제주도 지역이 7만3000여개, 서귀포시 지역이 4만5000여개 등 무려 11만8000여개에 달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도 공간정보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맨홀 뚜껑.

시스템 상에는 맨홀 뚜껑 재질,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분류란이 있지만 정작 이 분류란에 기입된 맨홀 뚜껑 재질 정보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과거 문서로 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공간정보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에서 맨홀 뚜껑 재질이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습

침수 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 정비가 필요한 것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제주도는 해당 시스템에 맨홀 뚜껑 재질 정보가 없는 이유에 대해 "원 데이터(문서로 된 지하시설물 도면) 자체에 재질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재질 정보를 빠뜨려서 발생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공간정보시스템은 지난 2017년 구축됐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몇개인지 파악하지 못한 제주도와 달리 부산시는 그 현황을 모두 파악해 전부 철제로 교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도 문서로 된 지하시설물 도면 등을 전산화해 'UIS'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맨홀 뚜껑 종류와 모양 등을 전부 파악했다"며 "이 정보를 토대로 전량 교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홍보물 환경오염 우려 '골칫거리' 도마

4·10 총선 31만 세대에 배포 비닐코팅 재질 재활용 불가 현수막도 대부분 폐기 처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접어들면서 각종 선거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다. 이중 일부 공보물은 실효성이 적은 데다가 재활용도 어려워 일각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안내물 및 공보물을 도내 31만1678세대에 배포했다. 이외에 군인·경찰 등 요청으로 공보물 514개를 추가 배송했고, 접전형 선거공보물 1013개를 발송했다.

문제는 이처럼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많은 양의 선거공보물들은 약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봉투조차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공보물들이 부지기수이며, 종이류 인쇄물인 책자형 공보물은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비닐코팅 처리된 공보물은 재활용마저 어려워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도 골칫거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에 제주지역 후보자들은 제주도 갑지역 28개, 제주도 을지역 24개, 서귀포지역 34개 이내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현수막은 주성분이 플라스틱 합

성섬유로 돼 있어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시 유해물질이 배출돼 재활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재활용되는 현수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매립시 잘 썩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도 하나의 환경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비용이 2~3배 차이 나면서 대다수가 사용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선거홍보물의 친환경 소재 사용이나 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선거홍보물 저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선거철마다 환경오염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현수막 규격과 매수에 엄격한 제한은 물론 후보자 공약이 담긴 공보물을 전자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선거 관련 폐기물 중 현수막이 가장 큰 문제다.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이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현수막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매수에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물 전자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소외계층과 종이로 공보물을 받고 싶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자로 공보물을 배포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재현기자



청보리밭과 한라산 8일 제주도 이호동의 물결치는 청보리밭 너머로 웅장한 자태의 한라산이 4월 그림같은 제주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소방본부 '제주119에 바란다' 게시판 개설

제주소방이 도민들의 필요에 맞는 소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제주소방

안전본부 누리집에 '제주119에 바란다'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게시판은 도민 소통을 활성화해

도민 눈높이에서 제주 소방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소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10일 이내 답변을 등록한다.

검토된 의견은 향후 업무계획 및 정책에 반영되며,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시 공무직 공개채용 평균 경쟁률 17.3대 1 24명 모집에 416명 지원

경쟁률 가장 높았던 분야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으로 1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했다. 5명을 뽑는 환경미화원 공채에도 132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자 연령대는 30대가 167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17명(28.0%) >40대 103명(25.0%) >50대 29명(7.0%) 순으로 평균연령은 35세였다. 성별로는 남성 215명(51.7%), 여성 201명(48.3%)이었다. 이상민기자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2699-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두르려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보양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hn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